SPRi 이슈리포트

2015. 10. 27. (2015-008호)

# 청년·대학생 위주의 창업정책, SW스타트업에 적합한가?

유호석 선임 연구원

(hsy@spri.kr)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 본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실 유호석 선임연구원(hsy@spri.kr, 070-4915-7989)

# 《 Executive Summary 》

□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창업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높은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및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SW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으로 초기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창업지원 정책이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경쟁력 없는 창업 붐이 우려됨

□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대학생 위주 창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SW스타트업 147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일부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대학생 같은 비경력자 보다는 경력 창업자가 비경력 창업자 대비 성장률, 투자유치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년·대학생 위주 창업정책의 대안으로 'SW경력자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비슷한 시기 미국 기술투자 펀드의 발표에 따르면, 성공한 미국 IT벤처 창업자의 평균경력은 16년에 달함

□ 본 보고서는 SW경력자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함

① (방향) '가벼운 창업'에서 '진지한 창업'으로 SW스타트업 정책 지원의 방향을 수정하여 경력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

② (R&D) 경쟁력 있는 SW스타트업이 초기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유망한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고성과 SW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자금지원이 필요

③ (복지) SW개발자 생태계 정책과 연계하여 연금제도 등 SW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제도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④ (교육) SW경력자가 참여하는 팀 단위의 실전형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활성화하여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목 차 》

1. 창조경제와 SW스타트업 ····· 1

2. SW스타트업의 양적 성장과 낮은 질적 경쟁력 ····· 3

3. SW스타트업 조사결과 ····· 5

4. 창업정책의 사각지대, ‘SW경력자 창업촉진’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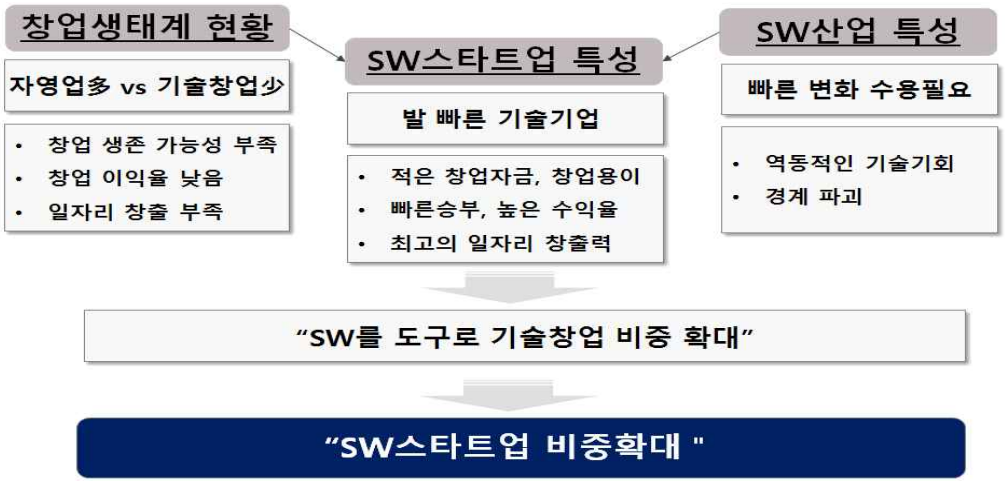
5. 정책 시사점 ····· 14

# 1. 창조경제와 SW스타트업

## *SW스타트업은 창업생태계와 SW생태계 모두에 중요*

□ **(SW스타트업 필요성)** 기술변화에 적응하여 경계를 파괴하는 SW스타트업은 대기업 보다 급격히 성장하고 지식흡수가 왕성하여 SW생태계에서 씨앗(Seeds)의 역할

< SW스타트업의 확대 필요성(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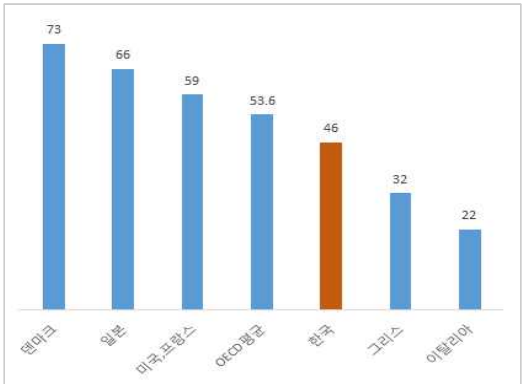

□ **(역동적 SW생태계 조성가능)** SW스타트업 비중확대를 통해 낮은 기술창업 비중 개선과 역동적인 SW생태계 조성이 가능

* 기술창업은 23%,[1] 반면 자영업 창업은 77%이며, 해외에 비해 기술창업비중이 낮음[2]

<기술창업 비율 23%에 불과>

| | 구분 | 비중 | 매출액 (만원) | 당기이익 (만원) | 일자리 수(명) |
|---|---|---|---|---|---|
| 기술창업 | 제조업 | 8.7% | 88,406 | 6,031 | 6.4 |
| | 지식서비스업 | 14.6% | 60,356 | 7,039 | 4.6 |
| | 기술창업 계 | 23.3% | 70,681 | 6,686 | 5.3 |
| 자영업 | 도매/소매업 | 29.2% | 47,315 | 2,497 | 1.9 |
| | 숙박/음식점 | 27.1% | 9,900 | 1,707 | 2.1 |

< 낮은 기술창업 지수 (GE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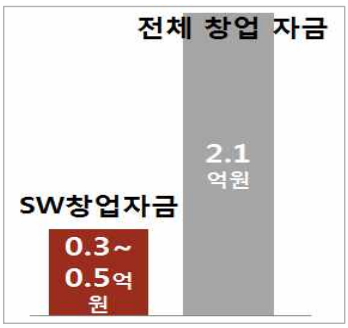

1) 중기청&창업진흥원(2013)
2)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 *SW스타트업은 쉽게 창업, 빨리 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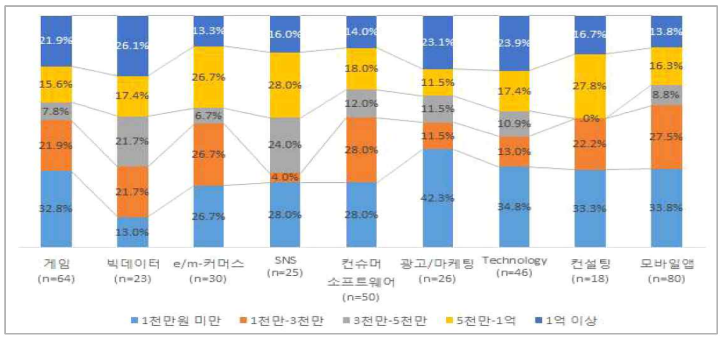
□ **(보다 쉬운 창업)** SW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은 타 업종의 1/4 이하로서 SW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으로 초기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

* SW창업 자금은 평균 3천만~5천만원, 전체 업종은 2.1억 수준[3]

< 창업자금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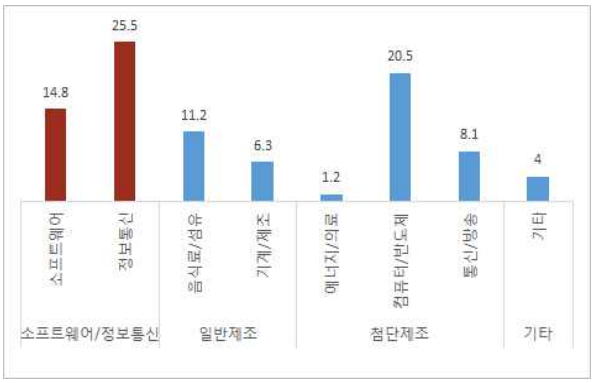



< SW스타트업의 창업자금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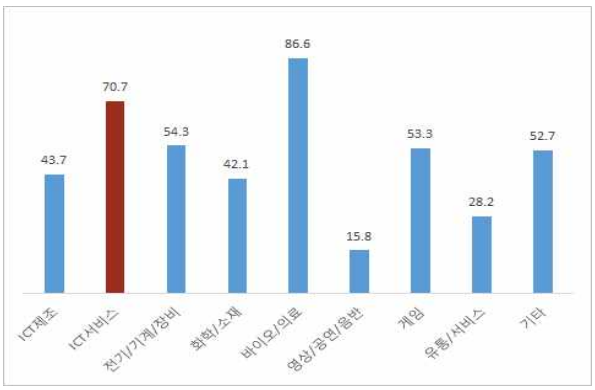



□ **(높은 성장과 일자리)** SW개발 벤처[4]의 매출 성장률은 15%[5], ICT서비스 벤처의 투자 수익률은 70%[6], 일자리 증가율은 7.3%[5]로 타 업종 대비 최고의 증가율을 보임

< SW 벤처성장률 (2013년) >




< VC투자 수익율(2013년) >




3) SW창업자금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2014) , 전체 창업자금- 중기청&창업진흥원(2013)
4) 스타트업은 7년 이내 창업기업이고 벤처는 기술심사 등을 통해 벤처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서 그 대상이 다름. 그러나 벤처기업이 되는 것이 법인세 등록 등의 인센티브가 명확한 바, 본 보고서의 대상으로 삼는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은 벤처인증 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SW스타트업만의 통계자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W벤처의 통계를 함께 인용함.
5) 벤처기업협회, <2014 벤처기업 실태조사>
6) 국회예산정책처, <2014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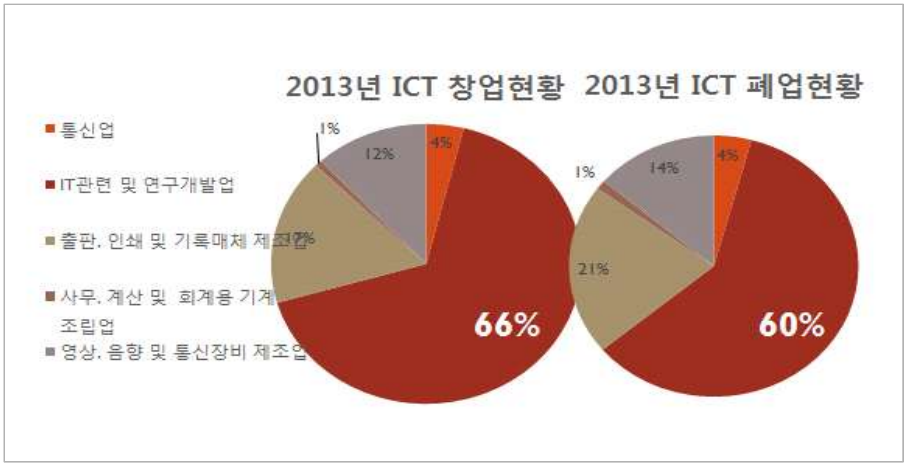
# 2. SW스타트업의 양적 성장과 낮은 질적 경쟁력

## *SW스타트업의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

□ **(SW스타트업의 양적성장)** 창조경제 이후, 창업촉진 정책을 통해 다수의 SW스타트업의 창업이 활발하나, 창업 이후 경쟁력이 낮아 폐업률 역시 높음

* 2013년 기준 ICT기업 중 SW기업 창업이 66%, 폐업이 60% 수준[7)]

**< 2013년 ICT기업 창·폐업 현황 >**




□ **(청년창업 지원에 편중) 현재 창업지원 정책이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음**

* 중기청 창업관련 현금/현물지원 7,400억 중 78%에 해당하는 5,800억원을 청년·대학생 위주로 지원 중

**< 2015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자금 비중 >**

| 주요대상(예산) | 분류 | 프로그램 | 심사기준 |
|---|---|---|---|
| 청년·대학생 (5,800억) | 아이디어·기술창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11개 | 사업계획서 중심 |
| | 창업저변 확대 | 창업인턴제,모태펀드 등 11개 | |
| | 지식서비스 창업 | ICT기반 개발 등 4개 | |
| 창업기업 (1,600억) | 기술개발자금지원 | 창업성장기술개발 1개 | 재무제표 중심 |

7) 국세청 통계연보 2013~2014년

**< 성공적인 미국 IT벤처의 창업자의 평균경력은 1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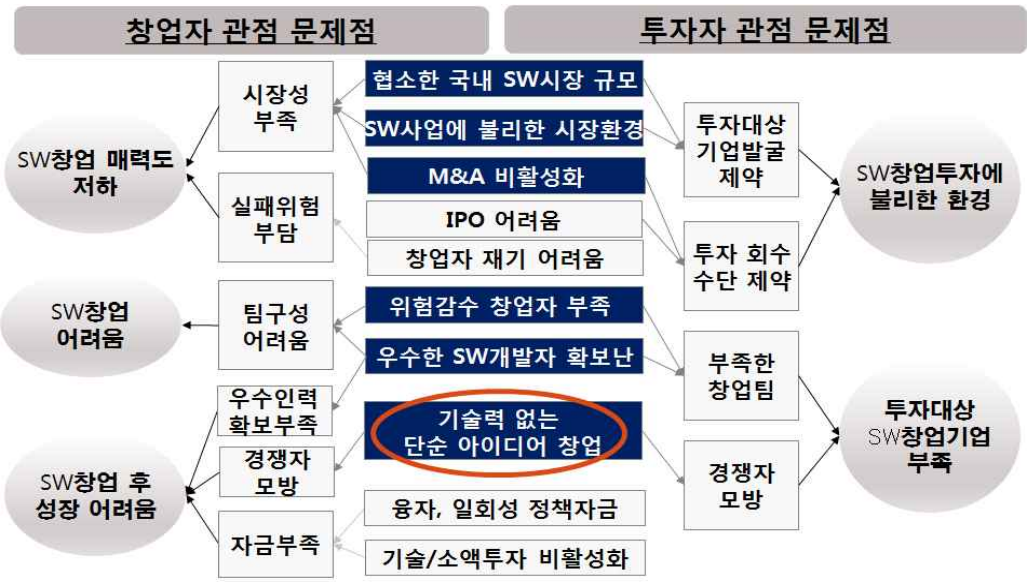
□ 블룸버그의 기술투자 펀드인 '블룸버그 베타'와 'UC버클리 하스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ㅇ성공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나이는 38세, 기술경력 보유자 비율 53%, 평균 학력은 '석사 이상'이상이며, 평균 16년간 벤처회사 근무 경험

* 출처 : 美뉴욕타임스, "The Next Mark Zuckerberg Is Not Who You Might Think", 15.7.2 (연합뉴스 재인용)

□ **(가벼운 창업 위주)** VC/엔젤, 창업자 대상 소규모 인터뷰[8] 결과에 따르면, 기술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창업은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에 한계가 따름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 스타트업 창업가 및 투자자 인터뷰 결과 >**




□ **(SW창업정책 재고 필요)**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버블 붕괴를 교훈삼아, 무조건적인 창업 장려 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SW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정책을 정비할 시점임

8) VC/엔젤 4명, 창업자 8명, 창업지원 기관 2곳 인터뷰

# 3. SW스타트업 조사결과

□ **(조사배경)** 국내 SW스타트업 147개를 대상으로 창업멤버 구성에 따른 SW스타트업의 성과에 대해 조사함

**< 조사 개요 >**

·시기 : 2015년 5월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업체 : 오픈서베이)
·대상 : 조사업체가 보유한 IT/지식서비스 기업中 "SW가 회사의 핵심기술"이라고 응답한 창업자 147명
·내용 : 인력구성 및 경력, 성장기간, 창업자금 출처, 창업 애로점 등

**< 창업자 연령·성별 분포 >**

| 연령 | 남 | 여 | 합계 |
|---|---|---|---|
| 20대 | 16% | 11% | 27% |
| 30대 | 34% | 11% | 45% |
| 40대 | 22% | 4% | 26% |
| 50대 | 2% | 1% | 2% |
| 합계 | 73% | 27% | 100% |

**< 창업 연도별 분포 >**

| 창업년도 | 분포 |
|---|---|
| 2009 | 3% |
| 2010 | 4% |
| 2011 | 6% |
| 2012 | 18% |
| 2013 | 24% |
| 2014 | 34% |
| 2015 | 11% |
| 합계 | 100% |

**< 창업 지역별 분포 >**

| 지역 | 분포 |
|---|---|
| 서울 | 64% |
| 경기 | 24% |
| 인천 | 4% |
| 대구 | 2% |
| 광주 | 2% |
| 부산 | 2% |
| 전북 | 1% |
| 충남 | 1% |
| 충북 | 1% |
| 경북 | 0% |
| 합계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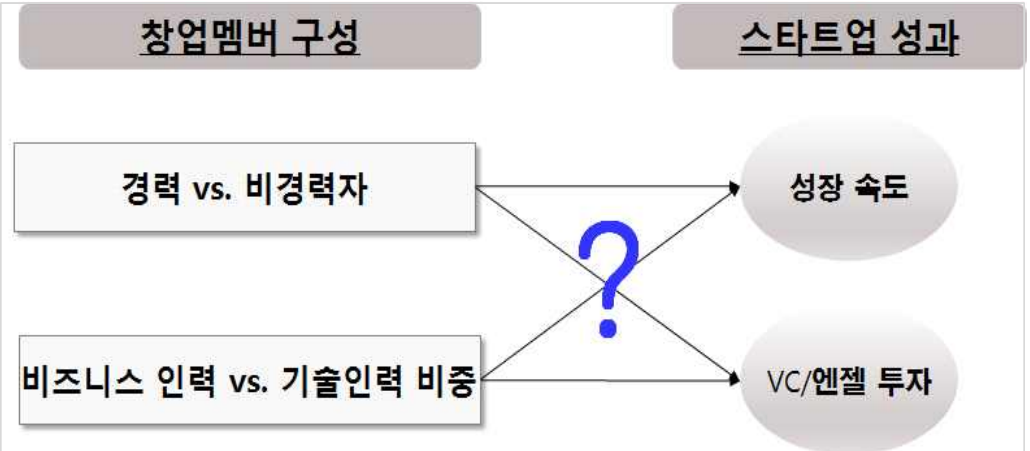
□ **(조사 설계)** 청년·대학생 창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경력자 대비 경력자의 성과를 비교하고, 단순 아이디어 창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력 보유 정도에 따른 성과차이를 비교함

○ 문헌연구를 통하여 스타트업 성과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경력보유' 와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 을 설정함

- 경력보유 란, 창업멤버가 업종/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정도임[9)]

-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Team Completeness)이란, 필요한 비즈니스 인력(마케팅, 재무 등)과 기술인력(개발, 운영 등)을 창업시점에 보유한 정도임[10)]

< 조사 설계 개요 >




○ 스타트업 성과는 '성장속도' 와 'VC/엔젤 자금조달 비중' 로 측정함[11)]

- '성장속도' 란, 해당 스타트업의 현재의 성장단계 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도달하였는지를 나타냄

- 'VC/엔젤 자금조달 비중' 이란, 창업 이후 VC 또는 엔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비중임 (창업시점 투자는 제외)

9) West & Noel (2009) , John C. Dencker & Marc Gruber & Sonali K. Shah (2009)
10) J.B Roure & R.H. Keely (1990), J Robert Baum & Edwin A Locke & Ken G Smith (2001)
11) Tarek Miloud & Arild Aspelund& Mathieu Cabrol (2012) 의 성과측정 방식을 참조함

< 스타트업 성장단계 >

| 단계 | 단계명 | 설 명 |
|---|---|---|
| 1 | 사업계획 | 창업 멤버를 모으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 2 | 시장성 검증 | 시제품(MVP[12])을 완성하고 제품/서비스의 시장성(Market-product Fit)을 검증하여, 점진적으로 제품/서비스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 |
| 3 | 사용자 확보 | 제품/서비스의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고객을 확보해가는 단계 |
| 4 | 매출발생 /고객확장 | 사용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 |
| 5 | 사업성장 |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여 외부 추가 자금 지원 없이 매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 |

* 에릭리스(2012)의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단계별로 재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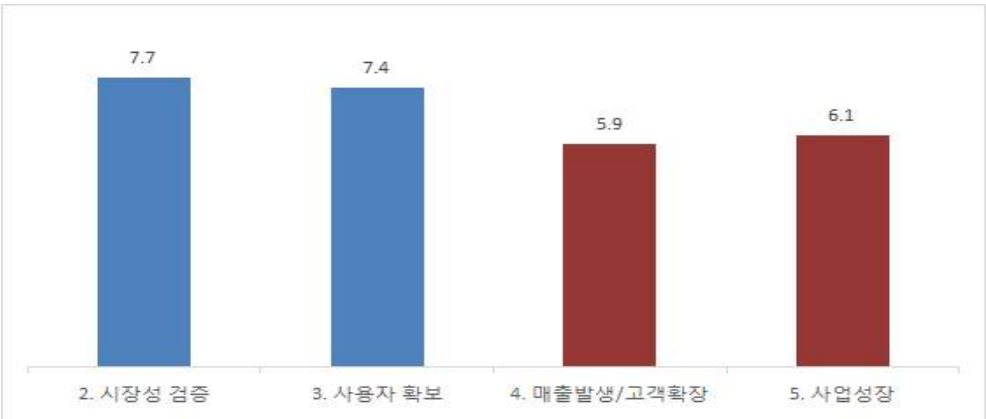
□ 조사 결과

○ **(빠른 성장이 중요)** 성장단계에 이른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한 경향을 보임

* 성장단계에 이른 스타트업(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4,5단계 스타트업)은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스타트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랐음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

단위 : 소요기간(개월)/단계 수




* 스타트업 성장 소요시간 : 성장단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걸린 평균 소요기간(개월) 수

12) Minimum Value Product

< SW스타트업 성장모델의 특징, “린 스타트업” 방법론>

○**(SW와 린스타트업)** SW는 문제해법을 찾아 고객에게 제공한 후, 이것 잘못된 경우 재빠르게 수정하여 사업방향을 전환(Pivot) 하는 것이 HW에 비해 유리하여, 빠른 개발과 낭비 최소화를 기본으로 하는 린스타트업 방법론[13]이 적합함

○**(필요경험)** 업종, 비즈니스, 기술, 스타트업 경험[14]이 성공확률을 높임

① 문제정의는 업종경험, 비즈니스 경험에서 나옴

② 문제해법은 비즈니스 경험, 기술 경험으로 풀어야 함

③ 해법을 반영한 최소제품 개발시점에는 기술경험이 필수적임

④ 최소제품으로 고객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매출을 늘리는 시점에는 비즈니스 경험과 기술경험이 모두 필요함

⑤ 잘못된 문제정의 또는 해법임을 깨닫고 사업방식을 전환(Pivot)하는 단계도 비즈니스 경험, 기술경험으로 극복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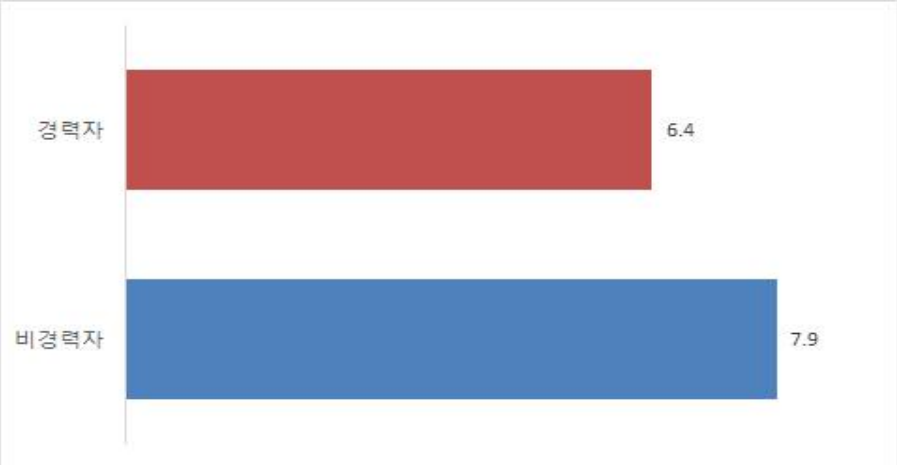
⑥ 이상의 과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본 스타트업 경험이 중요함

○**(경력자가 더 빠른 성장)** 경력자가 비경력자[15] 스타트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여 창업 이전 경력이 스타트업 성공확률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16]를 뒷받침함

* 비경력자 스타트업이 단계별로 7.9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경력자 스타트업은 6.4개월로 빠른 성장[17]

**< 경력자 vs. 비경력자 성장 소요시간 비교 >**

단위 : 소요기간(개월)/성장단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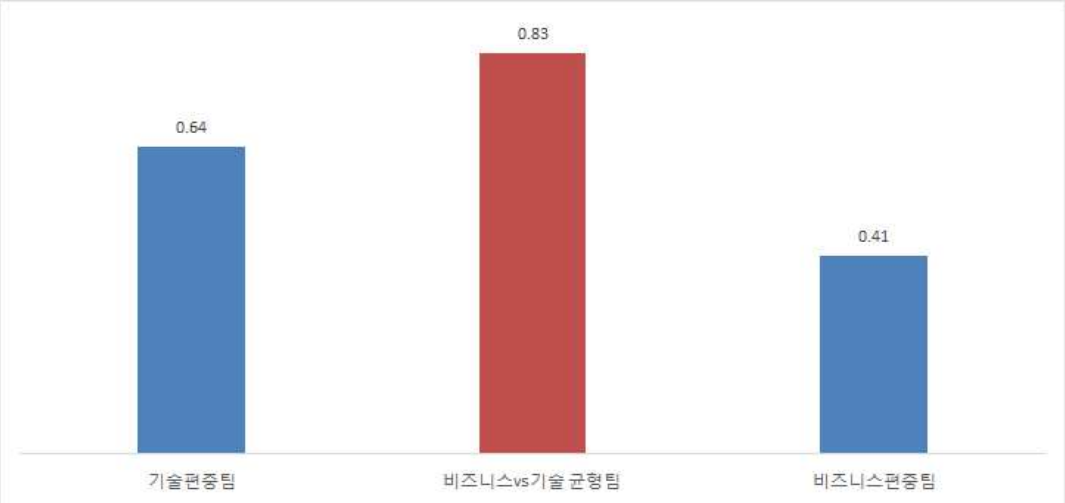

○**(적절한 기술인력 비중 필요)** 비즈니스 인력과 기술 인력 간 균형 있는 비중을 가진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후속투자에 성공함[18]

* '비즈니스 vs 기술 균형팀' 은 '비즈니스 편중팀' 에 비해 VC과 엔젤투자를 더 많이 유치함[19].

* VC/엔젤이 후속투자를 한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이 수익성을 갖추거나 IPO 또는 M&A를 통한 성공적인 자금회수를 기대한다는 의미로서, 선행연구에서 스타트업의 성과지표로 사용됨

13) 에릭 리스(2012)
14) West & Noel (2009)의 "Relatedness of Experience" 의 유형에 따른 분류
15) 비경력자의 정의 : 창업 이전 1년 이하의 경력기간을 가진 응답자
16) J.B Roure & R.H. Keely (1990)
17) T검정 유의수준 10%, P-Value는 0.056
18) T검정 수행결과 '비즈니스vs기술 균형팀' 과 '비즈니스 편중팀' 간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 (P-Value=0.034)
그러나, '비즈니스vs기술 균형팀' 과 '기술 편중팀' 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19) 기술 편중팀 : 기술인력 비중 75% 초과
비즈니스vs기술 균형팀 : 기술인력 비중 25~75%
비즈니스 편중팀 : 기술인력 비중 25% 미만

< VC/엔젤 투자유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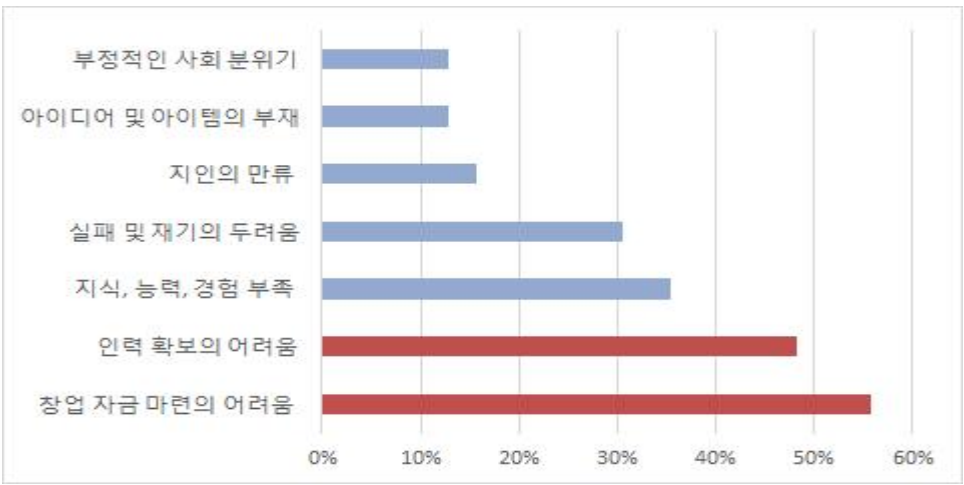



* (VC/엔젤 투자지수 계산방식) 스타트업 별 VC/엔젤 투자금액의 창업자금 내 순위를 점수화 하여 1위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으로 부여한 결과임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 창업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자금에 이어 인력으로 응답이 많아 비즈니스와 기술인력 간 균형 잡힌 인력구성이 실제로는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함

* 창업결정 당시의 애로점을 '인력확보'로 응답한 창업자가 48%에 달함

< 창업결정 당시 애로점 >



□ 조사 결론

○**(경력자와 기술인력 중요)** 경력자와 기술인력은 성공적인 스타트업 인력구성의 필수조건으로서, 청년·대학생 등 비경력자 보다는 경력자가 창업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으며, 후속 투자유치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기술인력 보유가 중요

○**(팀 구성 어려움)** 창업자가 필요기술 경력자 등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우수한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스타트업에 합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4. 창업정책의 사각지대, 'SW경력자 창업촉진'

### *SW경력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기회요인이 존재*

□ **(경력자 창업의사)** 중소기업 경력자의 창업비중이 높은 가운데, IT대기업 임직원 역시 높은 창업의사를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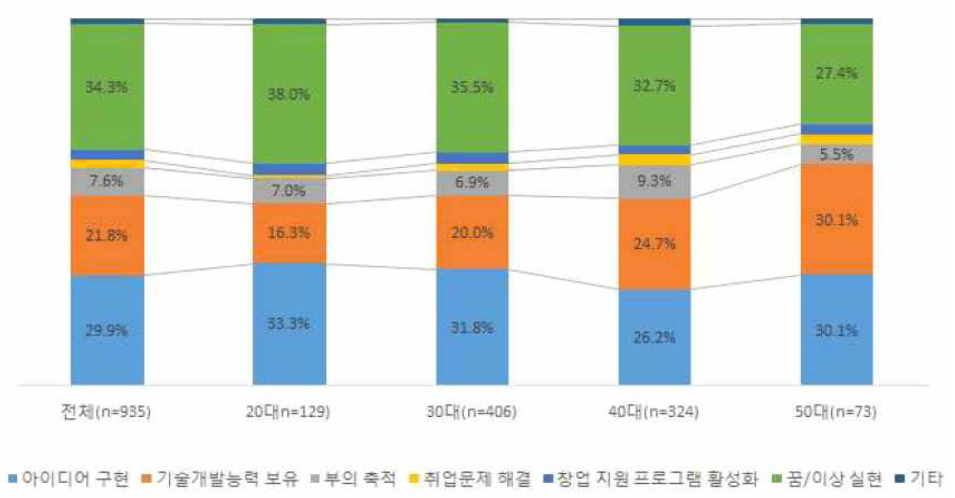
* 10대 IT대기업 임직원中 40%가 스타트업 창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직급별 창업의사 비율은 3~7년 차(대리급)가 30.8%로 가장 높음[20]

□ **(경력자 창업태도)** 창업동기의 측면에서 경력자가 보다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창업에 임함

* 창업동기 설문결과, 창업동기를 '기술능력 보유'로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 50대(30.1%)가 20대(16.3%)에 비해 2배임. 반면 20대의 경우 창업동기를 '꿈/이상실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38%)[21]

20) 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2014)

< ICT 창업자 연령별 창업동기 응답 분포 >




* 출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 **(창업을 통한 개발경력 지속)** 기존 기업에서 SW개발자 경력유지가 어려운 40대 이상 경력자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제2의 경력경로 제공

○ 한국은 SW개발자 경력기간이 짧아 실질퇴직 연령이 45세에 불과[22]하여, 연령초과 후 SW개발직을 유지하려면, 창업팀에 합류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임

* SW개발자에게 퇴직 후 계획을 설문한 결과,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응답이 43.8% 에 달함[23]

○ 경력자는 기술능력 外에도 비경력자에 비해 더 다양한 유형의 자본을 보유함

- (사회적 자본) 축적한 사회적 자본[24]을 통해 고객/제휴관계 구축에 유리하고 사업성장에 활용함

- (재무적 자본) 경력자는 창업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가능성이 더 높음

21)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22) 산업연구원(2012)
2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24) 인적·재무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원

## *SW경력자 창업을 막는 위험요인도 존재*

□ **(고연령자 채용 회피)** SW개발인력 부족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존기업에서는 고연령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을 회피함

○SW전문인력의 실질 퇴직연령은 약 45세로 타 업종 기술직군에 비해서도 빠른 편

**< 업종별 기술직군 실질 퇴직 연령 >**

| 업종 | 실질 퇴직 연령 |
|---|---|
| **소프트웨어** | **45세 전후** |
| 통신기기, 반도체 | 50세 전후 |
|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섬유,가전,디스플레이 | 55세 전후 |

※ 출처 : 산업연구원(2012)

* 본 보고서의 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30대 창업자 보다 40대 창업자가 '실패 및 재기의 두려움' 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29% vs. 40대 38% )

□ **(짧은 자본 축적기간)** 낮은 실질 퇴직연령은 노후자금 축적기간 단축을 야기함

○타 직종에 비해 이직이 빨라 퇴직금 조기 수령 가능성 높아, 노후에 충분한 공적 연금을 수령에 필요한 안정된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5. 정책 시사점

## *SW경력자 창업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정책 검토*

□ **(정책방향 변경)** 경력자의 기술창업 의사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정책을 변경하여 '가벼운 창업'에서 '진지한 창업'으로 지원방향 변경

○단순 아이디어 위주의 스타트업 지원 비중을 줄이고, 전문영역에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지원 비중 확대

□ **(지원대상 변경)** 고기술, 고경력 SW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

○ '관련경력 보유정도[25]'와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26]'을 갖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경력평가 비중확대

□ **(R&D지원 신설)** 경쟁력 있는 SW스타트업이 자금부족으로 중도 좌초하지 않도록 고성과 SW스타트업 대상으로 R&D 자금 지원

○기술창업의 경우 Death-Valley[27] 단계에 급격한 자금경색을 겪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R&D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스타트업은 양질의 자금을 확보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음[28]

- 단,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이 R&D자금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전 경력수준과 창업 후 성장속도[29]가 평균보다 높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함

25)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경력보유 정도'를 보다 구체화 하여 해당 업종/비즈니스 경험, 기술경험 , 스타트업 경험으로 세부화 하여 적용 필요
26)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설계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정의한 창업멤버 구성의 완전성(Team Completeness)와 동일한 의미임
27) 기술창업 일정기간 경과 후 찾아오는 매출정체, 자금고갈 단계로 자영업에 비해 순이익 감소의 골이 더 깊으나, 극복할 경우 순이익 증가가 더 높아 골짜기 형태의 그래프 추이를 보임
28) 한국무협협회. 2015, <IT벤처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29) 본 보고서에서 스타트업의 성과지표로 정의한 '성장단계 별 성장속도'를 의미함

## *SW경력자 창업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정책 검토 필요*

□ **(경력자 재취업 촉진)** SW경력자의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채용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가 SW개발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ㅇ링크드인과 유사한 신뢰 네트워크 기반 SW인력 헤드헌팅 전문기업 탄생을 법/제도 등 간접적으로 지원

□ **(복지강화)** SW개발자 대상 연금제도 도입 검토[30)]

ㅇ생애 주 직장 경력경로가 짧은 SW개발자의 장기적인 보상수준을 높여 스타트업이 실패해도 빈곤층으로는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

ㅇSW인력이 대/중소기업 취업·이직·프리랜서 등 근무형태에 관련 없이 SW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 제공

## *SW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팀 단위 경력자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실전형 창업교육)** SW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상호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면서 창업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전형 창업교육 도입

ㅇ기존 SW교육은 기술교육에만 중점, 기존 창업교육은 아이디어 생성과 비즈니스 운영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가 존재

ㅇ실전 기술창업형 교육은 SW를 직접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정 수 이상 사용자 또는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설계

30) 산업연구원 2012 <산업기술인력의 경력경로에 관한 연구-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을 참고함

ㅇ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전문가이나 SW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도 참여하여 SW를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팀 단위 비즈니스-기술융합 커리큘럼 구성

□ **(실전형 인큐베이션)** 관련경력 정도와 창업팀 구성의 완전성을 갖춘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인큐베이션 지원 강화

ㅇ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엔젤과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고 보완, 확대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임채성·이근·배용호(2003), <<21세기 산업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정책>>,집문당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2014), <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 중기청&창업진흥원(2013), <2013 창업기업실태조사>
- 산업연구원(2012), <산업기술인력의 경력경로에 관한 연구-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무협협회(2015), <IT벤처기업의 Death Valley 극복과 시사점>
- 오픈서베이&스타트업얼라이언스(2014), <Start-up Trend Report 2014>
- 에릭 리스(2012), <<< 린 스타트업 >>, 인사이트


## 2. 국외문헌


- GEM (2013)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 J.B Roure & R.H. Keely (1990), <Predictors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ume 5, Issue 4, July 1990, Pages 201-220
- Tarek Miloud & Arild Aspelund& Mathieu Cabrol (2012). <Startup valuation by venture capitalists: anempirical study>, Venture Capital, Taylor & Francis (Routledge): SSH Titles, 2012, 14 (2-3),pp.151-174.
- J Robert Baum & Edwin A Locke;& Ken G Smith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pr 2001; 44, 2; ABI/INFORM Global p 292
- West & Noel (2009), <The Impact of Knowledge Resources on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 John C. Dencker & Marc Gruber & Sonali K. Shah(2009), <Pre-Entry Knowledge, Learning, and the Survival of New Firms>, Organization Science, Vol. 20, No. 3, May-June 2009, pp. 516-537

## 주 의

1.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SPRI 보고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